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19년도 제1호

© Servizio Fotografico - Vatican Media

“사제의 소명은 인간의 힘을 훨씬 능가합니다.
따라서 사제가 새로 탄생하고 성장하며 열매를 맺는 것은
사제직을 준비하고 지원하며 사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늘 수반되어야 하는 기도

— ACN 설립자 베렌프리트 판 슈트라텐 신부 —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5년쯤 전에 제 아들 중 하나가 저희 부부와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을 사제로 부르셨으니 건축학 공부를 마치는 대로 그 부르심에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가족의 마음에 든 솔직한 감정은 주님께서 당신의 포도밭으로 일꾼을 초대하는 기쁨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젊은 아들이 사제직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정신적, 영적, 인간적 어려움 등을 잘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을지를 걱정했습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저는 신학생들을 교육하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며 신자들을 지원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안 그 무엇도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ACN은 여러분의 기도와 자비로운 후원으로 세계 곳곳의 모든 신학생 아홉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코 쉽지 않은 사제의 길을 가는 데 길잡이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합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작년에 열린 주교 시노드의 가장 주된 주제는 젊은이와 소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시노드에 참석한 주교들은 모든 이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 부름받았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의 인호를 받았으며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사제직의 신비는 성사를 베푸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품성사는 인간을 초월하는 선물입니다.

그 선택은 인간이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사제로 선택하십니다. 그중에는 아직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이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제로 부름을 받는다는 건 언제나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기에는 하느님께서 미래의 사제를 통해 행하실 경이로운 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루과이 신학생 페르난도가 자신이 겪은 일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루과이는 완전히 세속화된 나라이며 프리메이슨의 영향을 받은 정부가 수십 년간 모든 종교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영적인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진정 신비입니다. 페르난도는 4년간 사제가 되기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어느 날 고향 마을의 윌리엄 신부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학교에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사람들이 성당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신부님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작별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황없는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분이셨을까…….’ 그때 제 안에서 오늘날까지

도 반복되는 질문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였습니다. 저는 자신만의 세계에서 나와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드니 커다란 예수 성심 성화가 보였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다시 고개를 숙여 윌리엄 신부님이 누워 계신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제직이었습니다. 당시 제게는 다른 명확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제직이라는 응답이 제 마음속에서 마치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윌리엄 신부님처럼 소박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사람들 곁에 살며 보다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는 사제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러자 제 ‘미래의 탑’이 무너지고 그 옆에 또 하나의 탑이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탑은 너무 높아서 벽돌 하나를 새로 쌓아 올리지 못할 정도였지만, 그 이후에도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마침내 ‘예!’라고 답하기 전까지 하느님 자비의 표징이 더 나타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베렌프리트 신부님은 강론 중에 여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젊은이가 있으면 그에게 당신이 가진 것을 전부 주고 싶다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난하여 공부에 필요한 돈을 내기 어려운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훗날 자신들이 받은 것을 나누게 될 것이며 주님의 이름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파키스탄의 신학생들

주님과 함께 걷는 발견의 여정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는 우리가 사제로 살면서 해야 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사제들은 매주, 매일,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모든 소명은 맨 처음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근처 보르젤의 예수 성심 신학교에 다니는 야로슬라프는 사실 첫영성체를 하기 전까지는 성당에 가는 것도,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신부님의 강론을 듣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도 모두 지루하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저는 첫영성체를 준비하며 ‘사람들이 하느님께 일생을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이 호기심이 제 마음을 열어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제가 ‘아멘!’이라고 대답했을 때 그것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으며 제 소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걷는 ‘발견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야로슬라프는 예수 성심 신학교에서 일생 동안 이어질 이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다른 신학생 23명 중 한 명인 파블로 또한 어린 시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라며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는 묵상 중에 마음의 움직임이 한곳을 향하는 것을 보고 “사제직이 내 길”이라고 스스로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동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학교 성당에 방문했는데, 마침 성인 호칭 기도를 바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마음의 고향을 찾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파블로나 야로슬라프와 같은 신학생들에게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ACN은 우크라이나 보르젤의 신학생 24명에게 각각 77만 원씩, 총 1848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성체 거동 행렬

인도의 사제 성소자들

인도 북동부 아삼 주를 관할하는 봉가이 가언 교구는 19년 전

설정된 젊은 교구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처음 14명이었던 사제는 이제 34명이 되어 여러 곳에서 사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제는 여전히 부족하고 신학생 양성이 여의치 않은 형편인 데다가 교육의 질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봉가이가언은 전형적인 선교지로, 신학생들은 아직 사랑의 복음을 듣지 못한 주민이 대부분인 마을을 찾아가 자신들이 신학교에서 경험한 것을 나눕니다. **ACN은 인도 봉가이가언 교구 신학생 23명에게도 118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며 경험을 나누는 활동은 파키스탄 편자브 주 물탄 교구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물탄교구장 베니 프라바스 주교가 신학생 33명의 피정과 묵상을 위한 비용 960만 원을 ACN에 요청하여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편자브는 그리스도인에게 특히나 적대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으며 미래의 사제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피정과 묵상의 시간이 더욱 필요합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교회에 사제를 파견하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사제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처럼 다른 일들을 버리고 거룩한 신비를 찬양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사목 활동에 온 생애를 바칠 사람들을 부르시라는 확신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베네딕토 16세 교황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해 타오릅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인근에 있는 사도 성 베드로 신학교의 신학생 다비드 곤살레스는 “그리스도를 위해 애쓰는 것은 단지 유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식료품 가게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이곳의 신학생들은 가끔 “도대체 무엇을 먹고살니까?”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다른 신학생인 빅토르 미하레스가 라울 비오르드 카스티요 주교의 말을 빌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신학교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기적

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여러 사람의 도움에 힘입은 것입니다.” 이 도움의 손길 가운데 하나는 ACN 후원자 여러분이 주신 것입니다. 올해도 6개 교구에서 온 22명의 신학생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계속하려 합니다. **라울 주교는 이들이 극단적으로 굶주리는 일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사용할 자금 1930만 원을 ACN에 요청했습니다.** 라울 주교는 이를 통해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는 현실을 버티고자 희망합니다.

베네수엘라에는 복음을 전하고 희생을 각오하며 사목 활동에 종사할 사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부조리한 환경이 어떤 식으로든 바뀌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제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신학생 호세 그레고리오(20세)는 단 한 가지의 목표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많은 영혼을 하느님께 인도하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바치는 것”입니다. 호세와 같은 미래의 사제들과 ACN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은총의 기원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는 삶과 열정과 의지가 있는 곳에 진정한 소명이 생겨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이러한 의지와 열정은 아프리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콩고 공화국 우에소 교구에는 15,000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습니다. 1983년 교구가 설정되었고 1999년에 교구 출신의 첫 사제가 서품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에소 교구 사제는 20명으로 늘었고 현재 12명의 신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중 모코코 리스는 은총의 기원에 관해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은 성체성사에서 절정을 맞이합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가까이하는 매일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사제로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할 힘을 얻습니다.” 이곳 신학생들이 받는 교육은 확실하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ACN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 94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착복식을 앞둔 베네수엘라 신학생들의 모습



콩고 공화국에서 거행된 부제 서품식

섭리에서 피어난 봄날

“사제 소명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아서 하느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 빛이 나게 하려면 인간의 양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인내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사도의 모후 마리아 신학교에서는 현재 6명의 ‘다이아몬드 원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예브게니는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시베리아 동부의 캄차카반도에서 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비행기로 11시간이 걸리는 곳입니다. 캄차카반도는 이르쿠츠크 교구에 속합니다. 예브게니는 자신에게 ‘삶의 모범’이 되어 준 가톨릭 신부를 만났을 당시 관광 가이드로 일하며 관광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후 군 복무를 이행하며 많은 군인에게 내적 평화와 영적 자양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과거 신부님에게서 배운 것, 즉 주님의 기도나 묵주기도를 같이 바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성당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제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고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것이었지요.” 예브게니는 그때 자신의 성소를 느꼈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구에서 온 유일한 신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신학생 그레고르는 원래 전기 기술자였는데, 파티를 좋아하여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어느 날 늦잠을 자 버렸다고 합니다. 출근 버스에 올라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그는 문득 머릿속에 성경이 떠올라 꺼내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루카 5,10-11).” 그레고르는 가슴 한편으로 망설이며 기적이 일어나길 빌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도착하고 보니



1917년경 상트페테르부르크 신학교 정문 앞에 모인 신학생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순교했다.

사고가 일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누구도 그의 지각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레고르는 이것을 하나의 표지로 받아들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이곳의 사제 지망생 6명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신부제 지망생 6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도의 모후 마리아 신학교가 이어 온 오랜 역사의 일부이자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1879년에 설립된 이곳은 1918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폐쇄되어 수십 년 동안 신학교가 아닌 행정 관서로 사용되었습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야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시장이었던 블라디미르 푸틴의 승인으로 다시 가톨릭교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사제 양성 기관이 아니라 ‘역사적 다이아몬드’로 불릴 만큼 크나큰 상징적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사도의 모후 마리아 신학교가 지금까지 배출한 사제는 700명에 이르는데, 그중 많은 이가 순교했으며 2명은 시성되었습니다. 1993년에 신학교가 다시 문을 연 뒤로 64명의 새 사제가 탄생하였습니다. 타데우스 콘드루시예비츠 주교는 이곳을 가리켜 “러시아 교회의 심장부”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 같은 신학교는 현재 대대적인 건물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마련하는 데 ACN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ACN은 연간 1억 원을 지원하여 신학교를 전면 개조하는 것을 돕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순례자들을 위한 건물이 완공되면 이 비용은 줄어들 것입니다. 사도의 모후 마리아 신학교는 종교 자유의 상징이자 교회 젊은이들의 상징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말씀처럼 이는 ‘섭리에서 피어난 봄날’을 상징합니다.



방기의 살아 있는 돌

“여러분도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1베드 2,5)



영적인 집을 재건하는 일꾼들(뒷줄 맨 왼쪽에 페데리코 신부가 서 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가르멜 수도회는 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리고 은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교회의 살아 있는 돌이 되기를 지향하며 그와 동시에 학교와 성당, 병원 등을 짓는 돌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르멜회는 이미 120여 년 전에 첫 수도원을 세웠지만, 수십 년에 걸친 권력 투쟁과 내전을 겪은 지금은 복구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페데리코 신부는 “우리가 쌓아 올리는 벽돌은 전쟁과 증오보다 튼튼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페데리코 신부에게 단순히 건물의 벽돌이 아니라 가르멜회의 살아 있는 돌입니다. 과거에 쌓은 벽돌은 진흙을 구워 만든 것이었으나 지금 쌓아 올리는 새 벽돌은 진흙, 모래, 시멘트에 물을 살짝 섞어서 기계로 찍어 낸 것으로 수도회의 정신과 인내처럼 그 견고함을 영구히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보테로(20세)는 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 가르멜회의 난민 캠프를 찾은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는 열정이 가득 찬 목소리로 “음비 예 티 가 마손!”이라고 외쳤습니다. “벽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수도원 재건 사업 현장에는 보테로와 같은 처지의 난민 청년이 많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만든 벽돌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도 방기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요청에 따라 영양실조 어린이를 위한 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벽돌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페데리코 신부는 “교황님께서 우리 벽돌의 첫 번째 고객이신 셈이지요.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페데리코 신부에게,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더 많은 젊은이가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페데리코 신부는 이들

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건물을 쌓을 때 필요한 벽돌은 1주일이면 만드는 데 비해 수도자를 한 명 양성하기 위해서는 성소를 처음 발견하는 순간부터 살아 있는 교회를 지탱하는 벽으로서 생을 마칠 때까지 일생이 걸린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이 하나 더 있다면 벽돌은 똑같이 생겼지만, 형제들은 모두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지만, 이 사랑으로 하느님 나라에서 서로 다른 모습의 건물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페데리코 신부는 지난 10년간 성소 지원자와 수련자, 신학생들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그가 이번에 방기와 부아르, 이웃 나라 카메룬의 수도 야운데의 가르멜 수도원과 신학교에서 활동하는 38명의 젊은 수사들을 위한 지원 비용 2930만 원을 ACN에 요청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젊은이들의 가슴은 다시 불타오를 것이며, 이들은 영혼을 재건하는 ‘살아 있는 돌’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도와 줄 수 있어 기쁩니다

소식지를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비록 이렇게 약소한 방법으로 드리는 도움이지만 말입니다. 만약 제가 자신의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박해받는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ACN이 있어 감사드립니다. 베렌프리트 신부님 시절에 시작한 이 일이 큰 성과를 계속 내고 있다는 사실에도 감사드립니다.

털리지 않을 금고

방금 <사랑의 메아리>를 받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중동 지역의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부를 했지만, 이 털리지 않을 금고에 100유로를 더 보냅니다.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 그리고 서방이 순수하지만은 않은 이유로 참전한 전쟁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일하는 형제자매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더 좋은 날을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ACN에 마음을 담아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특히 자신의 믿음 때문에 가혹하게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매는 세상의 모든 선교사를 위해,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곳에 살아가는 모든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한국 후원자 여러분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이메일(info@churchinneed.or.kr) 또는 문자(010-7475-6440)로 여러분의 편지를 보내 주세요!

레바논의 '착한 목자 쉼터' 돕기

ACN 한국지부는 지난 1월 6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 가톨릭평화신문이 함께하는 국내외 원조 사업인 '사랑의 손길'을 통해 레바논 세헤일리의 '착한 목자 쉼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였습니다.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착한 목자 수녀회가 여러 폭력과 차별, 학대에 노출된 레바논 청소년과 난민 소녀를 위해 설립한 보호소입니다.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는 소녀들을 돌보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전문 심리 상담사와 넓은 쉼터의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 1월 6일자 서울주보 또는 가톨릭평화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소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해 주세요.



ACN 한국지부, 국회 송년 미사 참례

ACN 한국지부는 지난해 12월 12일, 대림 시기를 맞아 국회 송년 미사에 참례하여 미얀마와 중동의 그리스도인이 처한 힘겨운 상황을 알리며 ACN 활동에 대한 홍보와 모금 활동을 펼쳤습니다. "ACN은 어려운 이웃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에 찾아온 선물 같은 존재"라며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신 백충열 담당 신부님과 고통받는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또 관심 가져 주신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캠페인



시리아에서 온 ‘기도초 바람막이’

ACN은 지난해 대림 시기부터 성탄절까지 시리아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 세계의 기도와 연대,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대림 첫 주일 삼종기도를 바치고 시리아 아이들의 사진이 붙여진 대형 기도초에 불을 밝히며 시리아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셨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며 시리아의 아이들이 기도초에 쓸 수 있도록 ‘초 바람막이’ 위에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중 일부가 한국지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시리아에서 온 기도초 바람막이를 원하는 분께서는 휴대폰 문자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신청하기

휴대폰 문자

ACN 공식휴대전화(문자전용)

☎ 010-7475-6440

이름, 세례명, 주소를 문자(SMS)로 보내 주세요. 신청은 재고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한정된 수량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기도초 바람막이를 사용하시고 기도에 함께해 주신 사진을
해시태그 #ACN촛불기도와 함께 SNS에 공유해 주세요!**

분쟁의 땅에서 평화를 심는 미얀마 가톨릭교회

구글에 ‘미얀마 교회 돕기’를
검색하여 미얀마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미얀마 교회 돕기

검색



☞ 다 읽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